

『東醫壽世保元』에서 인용한 『東醫寶鑑』의 文章에 대한 고찰

원진희 · 김경요* · 유관석*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내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al Texts of 『Dongyi Suse Bowon』 Quoted from 『Dongeuibogam』

Won Jin-Hee, Kim Kyung-Yo*, Yoo Kwan-Suk*

Dept. of Intern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in Kwangju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in Kwangju

1. Objectives

This study is written to investigate the bibliographical facts on the book 『Dongyi Suse Bowon』(東醫壽世保元) quoted from 『Dongeuibogam』(東醫寶鑑).

2. Methods

It was researched on the comparative and literal study about the relation to 『Dongyi Suse Bowon』, 『Dongeuibogam』 and several books quoted from 『Dongeuibogam』.

3. Results and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found out 『Dongyi Suse Bowon』 has several wrong quoted expressions.

- 1) There are 22 wrong expressions of quoted book
- 2) There are 6 wrong expressions of writer
- 3) There are 6 wrong expressions of contents

Key Words : 『Dongyi Suse Bowon』(東醫壽世保元), 『Dongeuibogam』(東醫寶鑑), Bibliographical Facts

I. 緒 論

東武 李濟馬는 100여 년 전에 四象體質論을 제창하여 原理, 生理, 病理, 體質鑑別, 診斷 및 四象體質에 맞는 약물선택, 治療方劑의 組成 등 일체를 唱道하고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함으로써 韓方臨床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醫源論』에서 許浚의 勤勞功業을 역대 의가들 가운데 首位로 인정하였고, 기존의 의학을 許浚이 『東醫寶鑑』을 통해 갖추어 전함으로써 의학이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醫壽世保元』 全篇을 통틀어 『東醫寶鑑』이라고 직접 인용한 부분은 한곳도 없으며, 인용된 20여 종의 문헌 중에서도 『東醫寶鑑』 이후의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病證論”에 인용된 醫案은 『內經』이나 『傷寒論』, 『活人書』, 『古今醫鑑』, 『醫學入門』 등의 원서 자체보다는 대부분 『東醫寶鑑』에서 인용된 문장을 재인용한 것이다¹⁾.

• 접수일 2006년 10월 27일; 승인일 2006년 11월 27일
• 교신처자 : 원진희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내과학교실 503-310
Tel : +82-62-670-6528 Fax : +82-62-670-6767
E-mail : eztoy2@daum.net
• 이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내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따라서 『東醫壽世保元』, 특히 “病證論”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東醫寶鑑』과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引用句에 대한 고찰이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이제 저자는 『東醫壽世保元』에서 재인용한 『東醫寶鑑』의 인용문을 찾아서 올바르게 인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서적을 고찰하여 그 옳고 그름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저자의 논문이 四象醫學을 연구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II. 研究方法

1. 『東醫壽世保元』의 原文과 章節의 표시는 四象醫學原論(행림출판)을 근본으로 하였다.
2. 『東醫壽世保元』에서 재인용한 『東醫寶鑑』의 인용구를 찾아서 비교하였다.
3.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醫書를 찾아서 그 내용을 비교, 고찰하였다.

III. 本 論

第 8 章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

[8-1]: 張仲景傷寒論, 曰, 發熱, 惡寒, 脈浮者, 屬表, 卽太陽證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陽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 太陽病, 表裏發熱에서 인용한 것이다.

[8-2]: 太陽傷風, 脈陽浮而陰弱, 陽浮者, 熱自發, 陰弱者, 汗自出, 嗇嗇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 桂枝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陽形證用藥, 太陽傷風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二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上第五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

全書』에는 “脈陽浮而陰弱”이 “陽浮而陰弱”으로 되어 있다. 즉 ‘脈’字가 없다.

[8-3]: 危亦林得效方, 曰, 四時瘟疫, 當用香蘇散.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七, 瘟疫 香蘇散에 『得效』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香蘇散, 治四時瘟疫”이라고 되어 있다. ○『世醫得效方』⁶, 卷一, 傷寒, 和解에는 “香蘇散, 治四時傷寒, 傷風, 傷濕, 傷食”이라고 하였다. ○『太平惠民和劑局方』⁷, 卷之二, 治傷寒, 香蘇散에는 “治四時瘟疫, 傷寒”으로 되어 있다. 다만 『局方』에는 처방 내용에 ‘蒼朮’이 빠져 있다.

[8-4]: 龔信醫鑑, 曰, 傷寒頭痛, 身疼, 不分表裏證, 當用藿香正氣散.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陰證, 藿香正氣散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藿香正氣散, 治傷寒陰證, 頭痛身疼, 如不分表裏證, 以此導引經絡, 不致變動”이라고 되어 있다. ○『古今醫鑑』⁸, 卷五, 霍亂, 藿香正氣散의 主治症에는 『東醫寶鑑』과 같은 내용이 없다. ○『世醫得效方』⁶, 卷一, 傷寒, 和解 香葛湯에 “香葛湯, 治四時感冒不正之氣, 頭痛身疼……不問陰陽兩感”이라 하였고, 또 “如傷寒不分表裏, 以此藥導引經絡, 不致變動”이라고 하였다.

[8-6]: 太陽病, 脈浮緊, 發熱, 無汗而衄者, 自愈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血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中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無汗而衄者, 自愈也”가 “身無汗自衄者, 愈”로 되어 있다.

[8-7]: 太陽病, 六七日, 表證因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如狂者, 以熱在下焦, 小腹當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抵當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血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中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因’字가 ‘仍’으로, ‘如狂’이 ‘發狂’으로, ‘當滿’이 ‘當鞭滿’으로 되어 있고, “下血乃愈”와 “抵當湯主之” 사이에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熱在裏故也”라는 문구가 있다.

[8-8]: 太陽證, 身黃發狂, 小腹硬滿, 小便自利者, 血證, 宜抵當湯. 傷寒, 小腹滿, 應小便不利, 今反利者, 以有血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血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中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小便自利’가 ‘自利’로, ‘血證’이 ‘血證諦也’로, ‘以有血也’가 ‘爲有血也’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⁴에는 “太陽病, 身黃, 脈沈結, 小腹鞭, 小便不利者, 爲無血也.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抵當湯主之. 傷寒有熱, 小腹滿, 應小便不利, 今反利者, 爲有血也, 當下之, 不可餘藥, 宜抵當丸.”으로 되어 있다.

[8-9]: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者, 自愈, 但小腹急結者, 宜攻之, 宜桃仁承氣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血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中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其人如狂’이 ‘其人似狂’으로, ‘血自下者’가 ‘若血自下者’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에는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下者愈. 其外不解者, 尙未可攻, 當先解外, 外

解已, 但小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8-10]: 太陽病, 外證未除, 而數下之, 遂下利不止, 心下痞硬, 表裏不解, 人蔘桂枝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痞氣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下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太陽病, 外證未除, 而數下之, 遂協熱而利, 利下不止, 心下痞鞭, 表裏不解者, 桂枝人蔘湯主之.”로 되어 있다.

[8-13]: 張仲景, 曰, 婦人傷寒發熱, 經水適來適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此爲熱入血室, 無犯胃氣及上二焦, 必自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熱入血室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病脈證并治下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適斷”二字가 없고, “夜則譫語”가 “暮則譫語”로, “如見鬼狀”이 “如見鬼狀者”로 되어 있다. ○『醫學入門』⁹, 傷寒, 婦人傷寒에 “婦人傷寒, 寒熱似瘧, 經水適斷, 亦名熱入血室”이라고 하였고, 『普濟本事方』¹⁰, 卷第八, 小柴胡加地黃湯에 “治婦人室女, 傷寒發熱, 或發寒熱, 經水適來或適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이라고 하였다.

[8-14]: 陽明病, 口燥, 但欲漱水不欲嚥者, 此必衄, 不可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病禁忌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者’字가 없고, ‘不可下’ 아래에 ‘宜用犀角地黃湯’이란 말이 더 있다. ○『仲景全書』에는 “不可

下” 3字가 없다 ○『醫學綱目』³⁾에는 “『活人』云, 輕則犀角湯, 重則抵當湯”이라고 하였다.

[8-15]: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噦. 傷寒嘔多, 雖有陽明, 不可攻. 胃家實, 不大便, 若表不解, 及有半表者, 先以桂枝, 柴胡和解, 乃可下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病禁忌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 중 “陽明病……不可攻”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고, “胃家實……乃可下也”는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陽明病 胃實不大便에서 인용한 樓英의 注文이다. ○『東醫寶鑑』에는 “必噦” 아래에 “所以然者, 胃氣虛冷故也”라는 말이 더 있고, ‘陽明’은 ‘陽明證’으로, ‘不可攻’은 ‘不可攻也’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에는 “陽明病, 不能食, 攻其熱, 必噦. 所以然者, 胃氣虛冷故也. 以其人本虛, 故攻其熱, 必噦. 傷寒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로 되어 있다. ○『醫學綱目』에는 “右胃實不大便, 雖三尺之童, 亦知可下也. 殊不知仲景之法, 雖有胃實症, 若表不解, 及有半表者, 亦先用桂枝, 柴胡以解外, 然後視虛實消息之也.”라고 하였다.

[8-17]: 張仲景, 曰,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問曰, 緣何得陽明病? 答曰, 太陽病, 發汗, 若下, 若利小便者, 此亡津液, 胃中乾燥, 因轉屬陽明, 不更衣內實, 大便難者, 此名陽明病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病有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緣何’가 ‘何緣’으로, ‘若利小便者’가 ‘若利小便’으로, ‘此名陽明病也’가 ‘此名陽明也’로 되어 있다.

[8-18]: 傷寒轉屬陽明, 其人澀然微汗出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外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

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仲景全書』에는 ‘陽明’이 ‘陽明者’로 되어 있다.

[8-19]: 傷寒, 若吐, 若下後, 不解, 不大便五六日至十餘日, 日晡所發潮熱, 不惡寒, 狂言, 如見鬼狀, 若劇者, 發則不識人, 循衣摸床, 惕而不安, 微喘直視, 脈弦者生, 脈澀者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病惡候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五六日’이 ‘五六日上’으로, ‘狂言’이 ‘獨語’로, ‘脈澀者’가 ‘澀者’로 되어 있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陽明病, 循衣摸床의 인용문에는 ‘狂言’이 ‘狂語’로 되어 있다.

[8-21]: 許叔微本事方, 曰, 一人, 病傷寒, 大便秘, 日晡發潮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直視喘急, 諸醫皆走, 此誠惡候, 仲景雖有證而無法, 但云脈弦者生, 脈澀者死, 漫且救之, 與小承氣湯一服, 而大便利,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病惡候에 『本事』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普濟本事方』¹⁰⁾, 卷第九, 傷寒時疫(下), 下之而脈弦者生論證에서 인용한 것이다. ○『本事方』에는 “又有人病傷寒, 大便秘, 日晡發潮熱, 手循衣縫, 兩手撮空, 直視喘急, 更數醫矣, 見之皆走. 予曰, 此誠惡候, 得之者十中九死, 仲景雖有證而無法, 但云脈弦者生, 澀者死, 已經吐下, 難於用藥, 漫且救之, 若大便得通而脈弦者, 庶可治也. 與小承氣湯一服, 而大便利, 諸疾漸退, 脈且微弦, 半月愈.”라고 되어 있다.

[8-22]: 王好古海藏書, 曰, 一人, 傷寒, 發狂欲走, 脈虛數, 用柴胡湯, 反劇, 以蔘, 芪, 歸, 朮, 陳皮, 甘草, 煎湯, 一服狂定, 再服安睡而愈.

[고증]: ○海藏은 元代의 醫家인 王好古의 號이다.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虛證宜補에 『海藏』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陽明病, 狂亂續法에서 ‘海’라고 하여 인용한 것이다. ‘海’는 海藏을 가리킨다. ○『醫學綱目』에는 “陳志仁, 傷寒狂妄, 每欲狂走, 四五人扶捉不定, 脈虛數, 用柴胡湯反劇, 以麥, 苳, 歸, 朮, 甘草, 陳皮, 煎湯, 一服狂定, 再服安睡.”라고 되어 있다

[8-23]: 醫學綱目, 曰, 嘗治循衣摸床者數人, 皆用大補氣血之劑, 惟一人兼調振, 脈代, 遂於補劑中, 略加桂, 亦振止脈和而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虛證宜補에 『綱目』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陽明病, 循衣摸牀續法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略加桂’가 ‘略加桂二分’으로 되어 있다.

[8-24]: 成無己明理論, 曰,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也.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胃實則譫語. 手足澼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熱不潮者, 勿服.

[고증]: ○본문 중 “潮熱屬陽明……胃實則譫語”는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潮熱에 『明理』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고, “手足澼然汗出者……勿服”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實證宜下에 『明理』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陽明病, 潮熱과 譫語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傷寒明理論』¹¹, 卷上, 潮熱第五에는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也. ……其熱不潮, 未可與承氣湯.”이라 하였고, “手足澼然汗出者, 此大便必硬也.”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潮熱에는 “潮熱屬陽明, 必於日晡時發者, 乃爲潮熱. ……手足澼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 ……其熱不潮, 未可與承氣湯.”이라고 하였다.

으로부터 인용함.)이라 하였고, 譫語에는 “陽明之爲病, 胃家實也, 胃實則譫語. ……陽明病, 譫語有潮熱, 反不能食者, 胃中必有燥屎五六枚, 若能食者, 但鞭, 亦宜大承氣湯下之.”라고 하였다.

[8-25]: 朱震亨丹溪心法, 曰, 傷寒壞證, 昏沈垂死, 一切危急之證, 好人蔘一兩, 水煎, 一服而盡, 汗自鼻梁上出, 涓涓如水.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壞證, 奪命散에 『丹心』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奪命散, 治傷寒壞證, 昏沈垂死, 或陰陽二證不明, 過經不解, 及或因誤服藥, 困重垂死, 一切危急之證. 好人蔘一兩, 剉作一服, 水二升, 於銀石器內, 煎至一升, 去滓, 以新水沈冷, 一服而盡, 汗自鼻梁上出, 涓涓如水, 是藥之效也. 一名獨蔘湯.”이라고 하였다. ○『丹溪心法附餘』¹², 卷之一, 溫熱病에는 “壞證奪命散, 治傷寒, 汗下後不解, 或投藥錯誤, 致患人困重, 垂死昏沈, 或陰陽二證不明, 七日以後, 皆可服. 好人蔘一兩, 去蘆. 右爲片, 水二鍾, 於銀石器內, 熬至一鍾, 溫服, 病人喜冷, 以新水沈冷服之, 渣再煎服, 連進數服, 服至鼻尖上潤汗出, 是其應也.”라고 하였다.

[8-27]: 張仲景, 曰, 陽明病, 外證, 身熱, 汗自出, 不惡寒, 反發熱.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 陽明外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陽明外證云何? 答曰, 身熱, 汗自出, 不惡寒, 反發熱也.”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에는 “問曰, 陽明病外證云何? 答曰, 身熱, 汗自出, 不惡寒, 反發熱也.”라고 하였다.

[8-28]: 傷寒陽明病, 自汗出, 小便數, 則津液內竭, 大便必難, 其脾爲約, 麻仁丸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¹³, 內景篇, 卷之四, 大便, 脾約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麻仁丸’이 ‘脾約丸’으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는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雖鞭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라고 하였고, 또 “扶陽脈, 浮而濇, 浮則胃氣強, 濇則小便數, 浮濇相搏, 大便則難, 其脾爲約, 麻仁丸主之.”라고 하였다.

[8-29]: 陽明病, 自汗出,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大便雖鞭, 不可攻之, 宜蜜導法通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 陽明病禁忌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陽明病, 自汗出, 若發汗, 小便自利者, 此爲津液內竭, 雖鞭不可攻之, 當須自欲大便, 宜蜜煎導而通之.”라고 하였다.

[8-30]: 陽明病, 發熱, 汗多者, 急下之, 宜大承氣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 陽明外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8-31]: 李梴醫學入門, 曰, 汗多不止, 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 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 故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痺寒, 四肢拘急, 桂枝附子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¹³, 內景篇, 卷之二, 津液, 亡陽證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 雜證과 外集卷三下, 傷寒用藥賦, 雜證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凡汗多不止, 謂之亡陽. 又汗不得出, 亦謂

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 手足溫者, 可治. 凡汗漏不止, 眞陽脫亡, 故謂之亡陽, 其身必冷, 多成痺寒矣. 凡發汗過多, 則陽虛不固, 汗出多, 則津液亡, 而小便難, 四肢者, 諸陽之本, 液脫者, 骨屬屈伸不利, 是以四肢拘急, 桂枝附子湯主之.”라고 하였다. ○『醫學入門』에는 “體虛者, 漏汗不止, 眞陽脫亡. 凡汗不得者, 謂之亡陽, 汗多不止者, 亦謂之亡陽. 如心痞胸煩, 面青膚潤者, 難治, 色黃, 手足溫者, 可治.”라고 하였고, 또 桂枝附子湯은 “治太陽病發汗, 遂漏汗不止, 惡風溺難, 四肢拘急, 難以屈伸. ……方意, 以過汗, 則陽虛不固, 汗出多, 則津液亡, 而小便難, 四肢諸陽之本, 液脫者, 骨屬屈伸不利.”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十七, 汗, 自汗에 “知始爲熱中者, 表虛無陽, 不任外寒, 終傳爲寒中者, 多成痺寒矣.”라고 하였다.

[8-33]: 陽明病有三病, 太陽陽明者, 脾約, 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 是也, 少陽陽明者, 發汗, 利小便, 胃中燥煩實, 大便難, 是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 陽明病有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陽明病有三, 病有太陽陽明, 有正陽陽明, 有少陽陽明, 何謂也? 答曰, ……”로 되어 있다. ○『仲景全書』에는 “問曰, 病有太陽陽明, 有正陽陽明, 有少陽陽明, 何謂也? 答曰, ……”로 되어 있다.

[8-39]: 張仲景, 曰, 厥陰證, 手足厥冷, 小腹痛, 煩滿囊縮, 脈微欲絕, 宜當歸四逆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 厥陰病煩滿囊縮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⁹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醫學入門』, 外集, 卷三下, 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 陰證, 溫補에 “當歸四逆湯, 治

厥陰病, 氣弱, 手足厥逆, 小腹疼痛, 或嘔噦, 或囊縮, 血虛則脈細欲絕”이라고 하였다

[8-40]: 凡厥者, 陰陽氣不相順接, 便爲厥. 厥者, 手足逆冷, 是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 厥陰病手足逆冷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8-41]: 傷寒六七日, 尺寸脈微緩者, 厥陰受病也, 其證小腹煩滿而囊縮, 宜用承氣湯下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 厥陰病煩滿囊縮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 三十一, 厥陰病, 少腹滿囊縮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二卷, 傷寒例第三에는 “尺寸俱微緩者, 厥陰受病也, 當六七日發, 以其脈循陰器, 絡於肝, 故煩滿而囊縮.”이라고 하였다. ○『醫學綱目』에는 “尺寸脈微緩者, 厥陰受病也, 當六七日發, 其症少腹煩滿而囊縮. 『活人』云, 脈沈短, 囊縮者, 承氣湯下之.”라고 하였다.

[8-42]: 六七日, 脈至皆大, 煩而口噤, 不能言, 躁擾者, 必欲解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欲解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一卷, 辨脈法第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病六七日, 手足三部脈皆至, 大煩而口噤不能言, 其人躁擾者, 必欲解也”로 되어 있다. ○“脈至皆大, 煩而口噤”은 응당 “脈皆至, 大煩而口噤”으로 고쳐야 한다.

[8-43]: 朱肱活人書, 曰, 厥者, 手足逆冷, 是也. 手足指頭微寒, 謂之清, 此疾爲輕. 陰厥者, 初

得病, 便四肢厥冷, 脈沈微而不數, 足多攣.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陰厥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陰厥者……足多攣”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四, 二十八, 問手足逆冷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冷厥者, 初得病日, 便四肢逆冷, 脈沈微而不數, 足多攣.”이라고 하였다.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 “厥者, 手足逆冷, 是也.”라고 하였고, 『醫學正傳』¹⁵, 卷之五, 厥病에 “活人書曰, ……手足指頭微寒 謂之清, 理中湯.”이라고 하였다.

[8-44]: 傷寒六七日, 煩滿囊縮, 尺寸俱微緩者, 足厥陰經受病也. 其脈微浮爲欲愈, 不浮爲難愈. 脈浮緩者, 必囊不縮, 外證必發熱惡寒爲欲愈, 宜桂麻各半湯. 若尺寸俱沈短者, 必囊縮, 毒氣入腹, 宜承氣湯下之, 速用承氣湯, 可保五生一死. 六七日, 脈微浮者, 否極泰來, 水升火降, 寒熱作而大汗解矣.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一, 六, 問傷寒六七日煩滿囊縮其脈尺寸俱微緩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傷寒六七日, 煩滿囊縮, 其脈尺寸俱微緩, 此足厥陰肝經受病也. 厥陰病, 其脈微浮爲欲愈, 不浮爲未愈, 宜小建中湯. 脈浮緩者, 必囊不縮, 外證必發熱惡寒似瘡爲欲愈, 宜桂枝麻黃各半湯. 若尺寸俱沈短者, 必是囊縮, 毒氣入臟, 宜承氣湯下之. ……速用承氣湯下之, 可保五生一死. 若第六七日, 傳厥陰, 脈得微緩微浮, 爲脾胃脈也, 故知脾氣全 不再受剋, 邪無所容, 否極泰來, 榮衛將復, 水升火降, 則寒熱作而大汗解矣.”라고 하였다.

[8-45]: 諸手足逆冷, 皆屬厥陰, 不可汗下, 然有須汗須下者, 謂手足雖逆冷, 時有溫時, 手足掌心必煖, 非正厥逆, 當消息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

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 厥陰病手足厥冷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四, 二十八, 問手足逆冷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諸手足逆冷, 皆屬厥陰, 不可下不可汗, 然有須下有須汗證者, 謂手足雖逆冷, 時有溫時, 手足掌心必煖, 非正厥逆, 當消息之.”라고 하였다.

[8-46]: 李梴, 曰, 舌卷厥逆, 冷過肘膝, 小腹絞痛, 三味蓼萸湯, 四順湯主之. 囊縮, 手足乍冷乍溫, 煩滿者, 大承氣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 六經正病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에는 “厥陰心胞絡爲標, 故舌卷厥逆, 冷過肘膝, 吐沫嘔逆, 不渴, 小腹絞痛者, 爲寒, 三味蓼萸湯, 四順湯. 肝爲本, 主男子囊縮, 女子陰挺乳縮, 或手足乍冷乍溫, 大便實, 消渴, 煩滿者, 屬熱, 大承氣湯.”이라고 하였다.

[8-49]: 朱肱, 曰, 厥陰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飢不欲食, 食則吐蛔.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陰形證用藥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朱肱은 응당 張仲景으로 고쳐야 한다. ○『仲景全書』에는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蛔, 下之利不止.”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厥陰病, 氣上衝心에는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飢不欲食, 食則吐蛔.”라고 하였다.

[8-50]: 龔信, 曰, 傷寒有吐蛔者, 雖有大熱, 忌下涼藥, 犯之必死. 盖胃中有寒, 則蛔不安所而上膈, 大凶之兆也. 急用理中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吐蛔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古今醫鑑』⁸, 卷三, 傷寒에서 인용한 것이다. ○『古今醫鑑』에는 “一治傷寒, 若有吐蛔者, 雖有大熱, 忌下涼藥, 犯之必死. 盖胃中有寒, 則蛔上膈, 大凶之兆. 急用炮乾薑理中湯一服, 加烏梅二个, 川椒十粒, 煎服. 待蛔定, 却以小柴胡湯, 退熱.”이라고 하였다.

第9章 少陰人 胃受寒 裏寒病論

[9-1]: 張仲景, 曰, 太陰之證,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太陰脈證并治第十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仲景全書』에는 ‘太陰之證’이 ‘太陰之爲病’으로 되어 있다.

[9-2]: 腹滿時痛, 吐利不渴者, 爲太陰, 宜四逆湯, 理中湯. 腹滿不減, 減不足言, 宜大承氣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腹滿……理中湯”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陰病, 附吐利에서 인용한 것이고, “腹滿……宜大承氣湯”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腹滿時痛, 吐利不渴者, 太陰病. 『活人』云, 理中湯主之.”라고 하였다. ○『仲景全書』에는 “腹滿不減, 減不必言, 當下之, 宜大承氣湯.”이라고 하였다. 『醫學綱目』⁴, 卷之三十一, 太陰病, 腹滿에는 “減不必言”이 “減不足言”으로 되어 있다.

[9-3]: 傷寒, 自利不渴者, 屬太陰, 以其臟有寒故也, 當溫之, 宜用四逆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

二, 寒(上), 太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太陰脈證并治第十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宜用四逆湯”이 “宜服四逆輩”로 되어 있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陰病, 下利에는 “宜四逆湯”으로 되어 있다.

[9-4]: 太陰證, 腹痛自利不渴, 宜理中湯, 理中丸, 四順理中湯, 丸, 亦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十一, 九十五, 問下利者에 “自利不渴, 屬太陰, 四逆湯, 理中湯主之.”라고 하였다.

[9-6]: 張仲景, 曰, 病發於陰, 而反下之, 因作痞. 傷寒, 嘔而發熱者, 若心下滿而不痛, 此爲痞, 半夏瀉心湯主之, 胃虛氣逆者, 亦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痞氣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脈證并治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病發於陰, 而反下之, 因作痞. 傷寒五六日, 嘔而發熱者, 柴胡湯證具, 而以他藥下之, …… 但滿而不痛者, 此爲痞, 柴胡不中與之, 宜半夏瀉心湯.”이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二, 合病併病汗吐下後等病, 痞에는 “但滿而不痛者若心下滿而不痛者”로 되어 있다. ○“胃虛氣逆者, 亦主之”: 아래 [9-7]을 참조하면 甘草瀉心湯證이다.

[9-7]: 下後, 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雷鳴, 心下痞硬, 乾嘔心煩, 此乃結熱, 乃胃中虛, 客氣上逆故也. 甘草瀉心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痞氣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脈證并治第七

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 “傷寒中風, 醫反下之, 其人下利, 日數十行, 穀不化, 腹中雷鳴, 心下痞硬而滿, 乾嘔心煩, 不得安, …… 此非結熱, 但以胃中虛, 客氣上逆, 故便鞭也. 甘草瀉心湯主之.”라고 하였다. ○“此乃結熱”은 마땅히 “此非結熱”로 고쳐야 한다.

[9-8]: 太陰證, 下利清穀, 若發汗, 則必脹滿. 發汗後, 腹脹滿, 宜用厚朴半夏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陰形證用藥, 太陰病腹脹滿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太陰證…… 必脹滿”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고, “發汗後 …… 宜用厚朴半夏湯”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脈證并治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下利清穀, 不可攻表, 汗出, 必脹滿.”, “發汗後, 腹脹滿者, 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主之.”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太陰病, 腹滿에는 “下利清穀, 若發汗, 必脹滿.”으로 되어 있다.

[9-9]: 汗解後, 胃不和, 心下痞硬,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痞氣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脈證并治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傷寒, 汗出解之後, 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噦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로 되어 있다.

[9-10]: 傷寒下利, 心下痞硬, 服瀉心湯, 後以他藥下之, 利不止, 與理中湯, 利益甚, 赤石脂禹餘糧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 少陰病自利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脈證并治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傷寒, 服湯藥, 下利不止, 心下痞鞭, 服瀉心湯, 已後以他藥下之, 利不止, 醫以理中湯與之, 利益甚, 理中者 理中焦 此利在下焦, 赤石脂禹餘糧湯主之.”로 되어 있다.

[9-13]: 張仲景, 曰, 傷寒陰毒之病, 面青, 身痛如被杖, 五日可治, 七日不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上), 傷寒陰毒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厥陰病 陰氣毒盛變陰毒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陰毒之爲病, 面青, 身痛如被杖, 咽喉痛, 五日可治, 七日不可治, 升麻鱉甲湯去雄黃蜀椒主之.”라고 하였다.

[9-14]: 李梴, 曰,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其證四肢厥冷, 吐利不渴, 靜蹠而臥, 甚則咽痛鄭聲, 加以頭痛頭汗,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脣指甲青黑, 身如被杖. 又此證, 面青白黑, 四肢厥冷, 多睡.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陰毒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三陰病深……身如被杖”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 變證에서 인용한 것이고, “又此證……多睡”는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下, 傷寒用藥賦, 正陽散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에는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 外證比常陰證, 厥冷吐利, 不渴靜蹠, 甚則咽痛鄭聲, 加以頭痛頭汗, 眼睛內痛, 不欲見光, 面脣指甲青黑, 手背冷汗, 心下結硬, 臍腹築痛, 身如鞭扑, 外腎冰冷, 或便膿血.”로 되어 있고, 또 “正陽散, 治陰毒, 頭汗頭痛, 面青舌黑, 口張出氣, 煩渴, 心下硬滿, 肢厥身冷, 多睡.”라고 하였다. ○“面青白黑”은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에 모두 “面青舌黑”으로 되어 있으니, ‘白’은 ‘舌’의 誤植이다.

[9-16]: 張仲景, 曰, 傷寒直中陰經, 初來無頭痛, 無身熱, 無渴, 怕寒蹠臥, 沈重欲眠, 脣青厥冷,

脈微而欲絕, 或脈伏, 宜四逆湯. 四逆者, 四肢逆冷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 少陰四逆有二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下, 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 陰證, 溫補에 “四逆湯, 治直中陰證, 初病無頭痛, 無身熱, 無渴, 怕寒, 振慄, 蹠臥, 沈重欲寐, 脈來沈遲無力, 或無, 及太陰腹痛……手足厥冷, 指甲脣青……或少陰下利清穀……脈微欲絕……脈不出者.”라고 하였다. ○『丹溪心法附餘』¹², 卷之一, 中寒에 “四逆湯, 治傷寒自利, 脈微欲絕, 手足厥冷. 四逆名者, 四肢逆冷也.”라고 하였다.

[9-18]: 張仲景, 曰, 少陰病, 脈微細, 但欲寐.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로 되어 있다.

[9-19]: 傷寒,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 小便色白, 宜四逆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 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라고 되어 있고, 『醫學講目』³, 卷之三十一, 少陰病, 下利에 “活人』云, 四逆主之.”라고 하였다.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四, 二十四에는 “四逆湯主之.”라고 하였다.

[9-20]: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者, 附子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

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9-21]: 下痢, 腹脹滿, 身體疼痛, 先溫其裏, 乃攻其表, 溫裏, 宜四逆湯, 攻表, 宜桂枝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身體疼痛”이 “身體疼痛者”로 되어 있다.

[9-23]: 張仲景, 曰, 少陰病, 始得之, 反發熱, 脈沈者, 麻黃附子細辛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9-24]: 少陰病, 一二日, 口中和, 背惡寒, 宜附子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少陰病, 得之一二日, 口中和, 其背惡寒者, 當灸之, 附子湯主之.”로 되어 있다.

[9-25]: 少陰病二三日, 用麻黃附子甘草湯, 微發之, 以二三日無證, 故微發汗也. 無證, 謂無吐利厥證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少陰病……故微發汗也”는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

이고, “無證, 謂無吐利厥證也”는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陰病, 但欲寐嗜臥에서 인용한 樓英의 注文이다. ○『仲景全書』에는 “少陰病, 得之二三日, 麻黃附子甘草湯, 微發汗, 以二三日無裏證, 故微發汗也.”라고 하였는데, 『醫學綱目』에는 “無裏證”이 “無證”으로 되어 있다.

[9-26]: 下利, 脈沈而遲, 其人面小赤, 身有微汗, 下利清穀, 必鬱冒汗出而解, 病人必微厥, 所以然者, 其面戴陽下虛故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面小赤”이 “面少赤”으로, “身有微汗”이 “身有微熱”로 되어 있는데,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陰病, 下利에는 “身有微汗”으로 되어 있다. ○“身有微汗”은 마땅히 “身有微熱”로 고쳐야 한다.

[9-27]: 少陰病, 脈沈細數, 病爲在裏, 不可發汗. 少陰病, 但厥無汗, 而強發之, 必動其血, 或從口鼻, 或從目出, 是爲下厥上竭, 難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 少陰病禁忌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或從口鼻, 或從目出, 是爲下厥上竭, 難治.”가 “未知從何道出, 或從口鼻, 或從目出, 是名下厥上竭, 爲難治.”로 되어 있다.

[9-31]: 張仲景, 曰, 少陰病, 自利純青水, 心下痛, 口燥乾者, 宜大承氣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 少陰病自利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少陰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

景全書』에는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燥乾者, 急下之, 宜大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9-32]: 朱肱, 曰, 少陰病, 口燥咽乾而渴, 宜急下之. 非若陽明, 宜下而可緩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可下不可下證, 急下兩證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一, 五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蓋少陰主腎, 繫舌本, 傷寒熱氣入於臟, 流於少陰之經, 腎汁乾, 咽路焦, 故口燥咽乾而渴, 須宜急下之, 非若陽明證, 宜下而可緩也.”라고 하였다.

[9-33]: 少陰病, 口中辨, 口中和者, 當溫, 口中乾燥者, 當下. 少陰病, 下利辨, 色不青者, 當溫, 色青者, 當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과 少陰病自利에 『東垣』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東垣十種醫書』¹⁶, 此事難知, 卷上, 少陰證下利辨과 少陰證口中辨에서 인용한 것이다. ○『此事難知』에는 “口中乾燥者”가 “口乾燥者”로 되어 있다.

[9-34]: 李梴, 曰, 舌乾口燥, 或下利清水, 譫語便閉, 宜小承氣湯. 脣青, 四肢厥冷, 指甲青黑, 宜薑附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陰形證用藥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 六經正病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에는 “少陰, 心爲本, 故舌乾口燥, 或繞臍硬痛, 或心下硬痛, 或下利青水, 或譫語便閉, 小承氣湯. 腎爲標, 面寒如刀刮, 脣青, 不渴, 吐利, 胸腹絞痛, 四肢厥逆, 指甲黑, 蹠臥, 身如被杖, 古薑附湯.”이라고 하였다.

[9-37]: 朱肱, 曰, 躁無暫定而厥者, 爲臟厥.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有臟厥蛔厥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二, 合病併病汗下吐後等病, 煩躁에서 [成]이라 하여 인용한 것이다. ‘成은 成無己를 가리킨다.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四, 二十八, 問手足逆冷에는 “若傷寒發厥, 至七八日, 膚冷而躁, 無時暫安者, 爲臟厥.”이라고 하였고,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는 “傷寒, 脈微而厥, 至七八, 膚冷, 其人躁無暫安時者, 此爲臟厥.”이라고 하였다.

[9-38]: 藏厥者, 發躁無休息時, 發熱七八日, 脈微, 膚冷而躁, 或吐或瀉, 無時暫安者, 乃厥陰眞藏氣絕, 故曰藏厥. 仲景無治法, 而四逆湯, 冷飲救之. 又少陰病, 厥而吐利發躁者, 亦不治, 而三味蓼萸湯救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厥有臟厥蛔厥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變證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에는 “藏厥, 發躁無休息, …… 此乃厥陰眞藏氣盡, 故曰藏厥. 仲景無治法, 四逆湯, 冷飲救之. 又少陰, 厥而吐利, 發躁者, 亦不治, 三味蓼萸湯救之.”라고 하였다. 『東醫寶鑑』에는 “眞藏氣絕”이 “眞藏氣盡”으로, “少陰病”이 “少陰”으로 되어 있고, “而四逆湯”과 “而三味蓼萸湯”에서 ‘而’字가 없다.

[9-40]: 朱肱, 曰, 病人身冷, 脈沈細而疾, 煩躁而不飲水者, 陰盛隔陽也. 若飲水者, 非此證也. 厥陰病, 渴欲飲水者, 少少與之, 愈.

[고증]: ○“病人身冷……非此證也”는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陰盛隔陽에 『活人』에서 인용한다고 되어 있고, “厥陰病……愈”는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煩渴에 『活人』에서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病人身冷……非此證也”는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四, 二十七에서 인용한 것이고, “厥陰病……愈”는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厥陰病, 氣上衝心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病人身冷, 脈細沈疾, 煩躁而不飲水者, 是也. 若欲引飲者, 非也.”라고 하였다.

[9-41]: 成無己, 曰, 煩謂心中鬱煩也. 躁謂氣外熱躁也. 但煩不躁, 及先煩後躁者, 皆可治, 但躁不煩, 及先躁後煩者, 皆不可治. 先躁後煩, 謂怫怫然更作躁悶, 此陰盛隔陽也. 雖大躁欲於泥水中臥, 但水不得入口, 是也. 此氣欲絕而爭, 譬如燈將滅而暴明.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煩躁, 煩躁吉凶에 『明理』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二, 合病併病汗下吐後等病, 煩躁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 ‘成’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成]은 成無己를 말한다. ○『醫學綱目』에는 “內熱曰煩, 謂心中鬱煩也. 外熱曰躁, 謂氣外熱躁也. 內熱爲有根之火, 故但煩不躁, 及先煩後躁者, 皆可治, 外熱爲無根之火, 故但躁不煩, 及先躁後煩者, 皆不可治也……”라고 하였다.

[9-42]: 李梴, 曰, 傷寒陰盛隔陽, 其證身冷反躁, 欲投井中, 脣青面黑, 渴欲飲水, 復吐, 大便自利黑水, 六脈沈細而疾, 或無脈. 陰盛隔陽, 大虛證也, 宜霹靂散. 又曰, 厥逆煩躁者, 不治.

[고증]: ○“傷寒……宜霹靂散”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陰盛隔陽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고, “又曰……不治”는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陰厥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傷寒……或無脈”은 『醫學入門』⁹, 外集卷三下, 傷寒用藥賦, 霹靂散에서 인용한 것이고, “陰盛隔陽……宜霹靂散”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變證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며, “又曰……不治”도 『醫學入門』⁹, 外集卷三上, 傷寒變證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9-47]: 張仲景, 曰, 傷寒七八日, 身黃如梔子色, 小便不利, 腹微滿, 屬太陰, 宜茵陳蒿湯. 傷寒, 但頭汗出, 餘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身必發黃.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陰形證用藥, 太陰病發黃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腹微滿者, 茵陳蒿湯主之”로 되어 있다. 또 “陽明病, 發熱, 汗出, 此爲熱越不能發黃也. 但頭汗出, 身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渴引水漿者, 此爲瘀熱在裏, 身必發黃, 茵陳湯主之.”로 되어 있다.

[9-48]: 李梴, 曰, 天行疫癘, 亦能發黃, 謂之瘟黃, 殺人最急, 宜瘴疽丸.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六, 黃疸, 疫癘發黃에 『諸方』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瘴疽丸은 『醫學入門』¹⁷으로부터 인용하였다. ○『醫學入門』¹⁷, 外集, 卷六上, 雜病用藥賦, 濕類, 黃疸에는 “瘴疽丸, 治時行, 及瘴瘡, 疫癘, 忽發黃, 殺人最急.”이라고 하였다.

[9-50]: 『醫學綱目』, 曰, 但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 但頭汗出, 名曰水結胸, 小半夏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結胸에 『綱目』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二, 合病併病汗下吐後等病, 結胸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但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脇, 但頭汗出, 名曰水結胸, 小半夏湯加茯苓主之.”라고 하였고, 『醫學綱目』에는 “但結胸, 無大熱者, 此爲水結在胸脇也, 但頭微汗出者, 大陷胸湯主之. 『活人』云, 水結胸, 小半夏加茯苓湯, 小柴胡去棗加牡蠣湯, 亦主之.”라고 하였다.

[9-51]: 龔信, 曰, 寒實結胸, 無熱證者, 宜三物白散.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結胸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二, 合病併病汗下吐後等病, 結胸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白散, 小陷胸湯, 亦可.” 라고 하였다.

[9-54]: 張仲景, 曰, 病有結胸, 有藏結, 其狀如何? 曰, 按之痛, 寸脈浮, 關脈沈, 名曰結胸也. 何謂藏結? 曰, 如結胸狀, 飲食如故, 時時下利, 寸脈浮, 關脈細小沈緊, 名曰藏結. 舌上白苔滑者, 難治. 病人胸中, 素有痞, 連在臍傍, 引入小腹, 入陰筋者, 此名藏結, 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藏結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脈證并治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病人胸中”이 “病脇下”로, “引入小腹”에 “痛引少腹”으로 되어 있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二, 合病併病汗下吐後等病, 臟結與結胸 痞氣大同小異에는 『東醫寶鑑』과 인용문과 같다.

[9-55]: 朱肱, 曰, 藏結, 狀如結胸, 飲食如故, 時時下利, 而舌上白苔. 歌曰, 飲食如常時下利, 更加舌上白苔時, 連臍腹痛引陰筋, 此疾元來死不醫.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藏結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醫方類聚』¹⁸, 卷之三十二에 의하면 본문은 『傷寒活人書』, 傷寒問答, 四十六證歌, 臟結四十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類聚』에는 “連臍腹痛引陰筋”이 “連臍痛引陰筋者”로, “此疾”이 “臟結”이라고 되어 있다. ○丹波元堅에 의하면 『傷寒活人書』는 朱肱의 저작이다.

[9-57]: 張仲景, 曰, 黃疸之病, 當以十八日爲期, 十日以上宜差, 反劇爲難治. 發於陰部, 其人必嘔, 發於陽部, 其人振寒而發熱.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可治不治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¹⁹, 第二篇, 金匱要略方論, 第二卷, 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黃疸之病, 當以十八日爲期, 治之十日以上宜差, 反極爲難治. …… 發於陰部, 其人必嘔, 陽部, 其人振寒而發熱也.” 라고 하였다.

[9-58]: 諸疸, 小便黃赤色者, 爲濕熱, 當作濕熱治. 小便色白, 不可除熱者, 無熱也. 若有虛寒證, 當作虛勞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黃疸治法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二十一, 黃疸에서 인용한 것인데, 『醫學綱目』에 ‘仲’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仲’은 仲景을 말한다.

[9-59]: 腹脹滿, 面萎黃, 躁不得睡.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黃疸之因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¹⁹, 第二篇, 金匱要略方論, 第二卷, 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腹滿, 舌痿黃, 燥不得睡, 屬黃家. 舌痿疑作身痿.” 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二十一, 黃疸의 인용문에는 “腹脹滿, 面痿黃, 躁不得睡, 屬黃家.” 라고 하였다.

[9-60]: 黃家, 日晡時, 當發熱, 反惡寒, 此爲女勞得之. 膀胱急, 小腹滿, 一身盡黃, 額上黑, 足下熱, 因作黑疸. 腹脹如水狀, 大便黑或時溇, 此女勞之病, 非水也. 腹滿者, 難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黑疸難治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¹⁹, 第二篇, 金匱要略方論, 第二卷, 黃疸病脈證并治第十五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黃家, 日晡所, 發熱而反惡寒, …… 身盡

黃……其腹脹如水狀，大便必黑時 漉…….”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二十一, 黃疸의 인용문 『東醫寶鑑』과 같다.

[9-61]: 朱肱, 曰, 陰黃, 煩躁, 喘嘔, 不渴, 宜用茵陳橘皮湯. 一人, 傷寒發黃, 脈微弱, 身冷, 次第用藥, 至茵陳四逆湯, 大效. 一人, 傷寒發黃, 脈沈細遲無力, 次第用藥, 至茵陳附子湯, 大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陰黃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太陰病, 黃屬法에서 인용한 것인데, 『醫學綱目』에는 ‘海’로부터 인용한다고 하였다. ‘海’는 海藏을 말한다. ○『醫學綱目』에 “發黃煩躁, 喘嘔不渴, 茵陳湯, 加陳皮, 白朮, 生薑, 半夏, 茯苓, 主之.(韓氏茵陳陳皮湯) 趙秀才, 因下之早, 黃病, 脈寸微尺弱, 身冷, 次第用藥, 至茵陳四逆湯, 大效. 趙宗顏, 因下之太過生黃, 脈沈細遲無力, 次第用藥, 至茵陳附子湯, 大效.”라고 하였다. ○『玉機微義』²⁰, 卷之四十五, 黃疸門에는 “韓氏茵陳陳皮湯”이 “韓氏茵陳橘皮湯”으로 되어 있다.

[9-62]: 醫學綱目, 曰, 濕家之黃, 色暗不明, 一身不痛. 熱家之黃, 如橘子, 一身盡痛.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黃疸治法에 『綱目』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太陰病, 黃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色如烟熏黃, 乃濕病也, 一身盡痛. 色如橘子黃, 乃黃病也, 一身不痛. 濕家之黃, 色暗不明. 熱家之黃, 如橘子色.”이라고 하였다. ○『醫學綱目』에는 “色如烟熏黃, 乃濕病也, 一身盡痛. 色如橘子黃, 乃黃病也, 一身不痛. 濕家之黃也, 身黃似薰黃, 雖黃而色暗不明也. 熱家之黃也, 身黃似橘子色.”이라고 하였다. ○“一身不痛”과 “一身盡痛”은 마땅히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9-63]: 王好古, 曰, 凡病, 當汗而不汗, 當利

小便而不利, 亦生黃.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黃疸之因에 『海藏』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垣十種醫書』¹⁶, 此事難知, 卷上에 “當汗而不汗, 生黃”이라고 하였고, 『古今醫鑑』⁸, 卷六, 五疸에 “當下而不得下, 當汗而不得汗, 當利而不得利……皆能令人發黃病也.”라고 하였다. 『醫學正傳』¹⁵, 卷之六, 黃疸에는 “當利而不得利”가 “當分利而不得分利”로 되어 있다.

[9-64]: 朱震亨, 曰, 黃疸, 因食積者, 下其食積, 其餘, 但利小便, 小便利白, 其黃自退.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黃疸治法에 『丹心』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丹溪心法附餘』¹², 卷之八, 濕熱門, 疸에서 인용한 것이다. ○『丹溪心法附餘』에는 “因食積黃者, 量其虛實, 下其食積, 其餘, 但利小便爲先, 小便利白, 其黃則自退矣.”라고 하였다.

[9-65]: 李梴, 曰, 黃疸, 十日以上, 入腹, 喘滿煩渴, 面黑者, 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可治不治證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¹⁷, 外集, 卷四下, 雜病分類下, 濕類, 黃疸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에는 “十日以外, 入腹, 喘滿, 渴多, 面黑者, 死.”라고 하였다.

[9-66]: 王叔和脈經, 曰, 黃家, 寸口脈, 近掌無脈, 口鼻冷, 黑色, 並不可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黃疸, 可治不治證에 『脈經』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王叔和脈經』²¹, 卷八, 平黃疸寒熱瘧脈證第九에서 인용한 것이다. ○『王叔和脈經』에는 “凡黃, 候其寸口脈, 近掌無脈, 口鼻冷, 並不可治.”라고 하였다.

第 12 章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12-1]: 張仲景, 曰, 太陽病, 脈浮緊, 發熱惡寒, 身痛, 不汗出, 而煩躁者, 大青龍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陽形證用藥, 太陽兩傷風寒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 而煩躁者, 大青龍湯主之.”라고 하였다.

[12-3]: 張仲景, 曰, 少陽之爲病, 口苦, 咽乾, 目眩.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少陽病脈證并治第九에서 인용한 것이다.

[12-4]: 眩而口苦, 舌乾者, 屬少陽.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陽病, 眩에서 인용한 것이다.

[12-5]: 口苦, 耳聾, 胸滿者, 少陽傷風證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陽病, 耳聾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口苦, 耳聾, 胸滿者, 少陽中風.”이라고 하였다.

[12-6]: 口苦咽乾, 目眩耳聾, 胸脇滿, 或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和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可和不可和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

目』³, 卷之三十一, 少陽病, 胸滿과 脇滿痛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口苦咽乾, 又耳聾胸滿者, 屬少陽, 忌吐下, 宜柴胡湯.”이라 하였고, 또 “胸滿乾嘔, 往來寒熱者, 屬少陽.”이라고 하였다.

[12-9]: 朱肱, 曰, 凡發汗, 腰以上, 雖淋漓, 而腰以下, 至足微潤, 則病終不解.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可汗不可汗證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三, 十三, 問表證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發汗, 須如常覆腰以上, 厚衣覆腰以下, 蓋腰以上流漓, 而腰以下, 至足心微潤, 病終不解.”라고 하였다.

[12-12]: 張仲景, 曰, 少陽證, 濇濇汗出,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不惡寒, 表解裏未和也, 宜十棗湯. 若合下不下, 令人脹滿, 遍身浮腫.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 少陽病脇痛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濇濇”이 “漉漉”으로 되어 있다. ○“少陽病……宜十棗湯”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脈證并治第七에서 인용한 것이고, “若合下不下……遍身浮腫”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陽病, 脇滿痛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漉漉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 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라고 하였다.

[12-13]: 傷寒表不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手不可近, 心下滿而硬痛, 此爲結胸, 宜大陷胸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結胸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四卷, 辨太陽病脈證并治第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傷

寒表不解, 醫反下之, 膈內拒痛, 手不可近, 一云, 心下滿而硬痛, 此爲結胸, 宜大陷胸湯.”이라고 하였다. ○『仲景全書』에는 “太陽病 脈浮而動數, 浮則爲風, 數則爲熱, 動則爲痛, 數則爲虛, 頭痛發熱, 微盜汗出, 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脹, 短氣躁煩, 心中懊 憹, 陽氣內陷, 心下因鞭, 則爲結胸, 大陷胸湯主之.”라고 하였다.

[12-14]: 渴欲飲水, 水入卽吐, 名曰水逆, 五苓散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煩渴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12-15]: 杜壬, 曰, 裏不和者, 蓋痰與燥氣壅於中焦, 故頭痛, 乾嘔, 汗出, 痰膈也, 非十棗湯, 不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 少陽病脇痛에 『綱目』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少陽病, 脇滿痛에서 인용한 것이다. ○杜壬은 宋代의 醫家이다.

[12-16]: 龔信, 曰, 心下硬痛, 手不可近, 燥渴譫語, 大便實, 脈沈實有力, 爲大結胸, 大陷胸湯下之, 反加煩躁者, 死. 小結胸, 正在心下, 按之則痛, 宜小陷胸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結胸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心下硬滿…… 死.”는 『古今醫鑑』⁸, 卷三, 傷寒에서 인용한 것이고 “小結胸……宜小陷胸湯”은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合病併病汗下吐後等病, 結胸에서 인용한 것이다. ○『古今醫鑑』에는 “若按心下硬痛, 手不可近, 燥渴譫語, 大便實, 脈沈實有力, 爲結胸證, 急宜大陷胸湯加枳桔下之. 量

元氣虛實, 緩而治之. 反加煩躁者, 死.”라고 하였고 또 “小陷胸湯, 治小結胸, 心下痞滿而軟, 按之則痛.”이라고 하였다. ○『醫學綱目』에는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者, 宜小陷胸湯.”이라고 하였다.

[12-20]: 李子健傷寒十勸論, 曰, 傷寒腹痛, 亦有熱證, 不可輕服溫煖藥. 又曰, 傷寒自利, 當觀陰陽證, 不可例服溫煖及止瀉藥.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十勸에 『局方』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二十二, 傷寒十勸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增注類證活人書』에는 “當觀陰陽證”의 “觀”字가 “看”字로 되어 있고, 『增注類證活人書』에는 “不可例服溫煖”이 “不可例服補煖”으로 되어 있다.

[12-21]: 朱震亨, 曰, 傷寒陽證, 身熱脈數, 煩渴引飲, 大便自利, 宜柴芩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寒(下), 傷寒自利에 『丹心』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丹溪心法賦餘』¹²에는 “柴芩湯, 治發熱泄瀉, 裏虛者.”라고 하였다.

[12-39]: 張仲景, 曰, 太陽病不解, 轉入少陽者, 脇下硬滿, 乾嘔不能食, 往來寒熱者, 尙未吐下, 脈沈緊者, 與小柴胡湯. 若已吐下發汗, 譫語, 柴胡湯證罷, 此爲壞病, 依壞法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 少陽病壞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少陽病脈證并治第九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仲景全書』에는 “往來寒熱者”에서 ‘者’字가 없고, 『仲景全書』에는 “發汗”이 “發汗溫鍼”으로, “依壞法治之”가 “知犯何逆以治之”로 되어 있다.

[12-40]: 傷寒, 脈弦細, 頭痛, 發熱者, 屬少

陽, 不可發汗, 發汗則譫語.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少陽形證用藥, 少陽病不可發汗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少陽病脈證并治第九에서 인용한 것이다.

第13章 少陽人 胃受熱 裏熱病論

[13-1]: 張仲景, 曰, 太陽病, 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更下更吐.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不能得小汗出, 身不痒, 宜桂麻各半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陽形證用藥, 太陽病似瘧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太陽病脈證并治第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桂麻各半湯’이 ‘桂枝麻黃各半湯’으로 되어 있다.

[13-2]: 太陽病, 似瘧,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亡陽也. 身不痒, 不可發汗, 宜桂婢各半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陽形證用藥, 太陽病似瘧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二卷, 辨太陽病脈證并治第五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似瘧’ 2자와 ‘身不痒’ 3자가 없고 ‘桂婢各半湯’이 ‘桂枝二越婢一湯’으로 되어 있다.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太陽病에 “太陽病, 脈微, 身不痒者, 宜桂婢各半湯.”이라고 하였다.

[13-4]: 張仲景, 曰, 陽明證, 小便不利, 脈浮而渴, 猪苓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 猪苓湯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

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若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라고 하였다.

[13-5]: 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中外俱熱, 自汗煩渴, 腹痛身重, 白虎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合病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五卷, 辨陽明脈證并治第八에서 인용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仲景全書』에는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面垢, 譫語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라고 하였다.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下, 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 和解, 白虎湯에는 “主治傷寒汗後, 脈洪大而渴, 中外俱熱……心胸煩渴, 甚欲飲水, 自汗……及三陽合病, 頭痛面垢, 譫語遺尿, 身重, 難以轉側.”이라고 하였다.

[13-7]: 朱肱, 曰, 陽厥者, 必身熱頭痛, 外有陽證, 至四五日方發厥, 厥至半日, 却身熱, 蓋熱氣深, 方能發厥, 若微厥却發熱者, 熱深故也. 其脈雖伏, 按之滑者, 爲裏熱, 或飲水, 或揚手擲足, 或煩躁不得眠, 大便秘, 小便赤, 外證多昏憤, 用白虎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陽厥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四, 二十八, 問手足逆冷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熱深故也’가 ‘熱微故也’로 되어 있는데, 『醫學綱目』³, 卷之三十一, 厥陰病, 厥續法에는 ‘熱深故也’로 되어 있다.

[13-13]: 王好古, 曰, 渴病有三, 曰消渴, 曰消中, 曰消腎. 熱氣上騰, 胸中煩躁, 舌赤唇紅, 此渴引飲常多, 小便數而少, 病屬上焦, 謂之消渴. 熱

蓄於中, 消穀善飢, 飲食倍常, 不生肌肉, 此渴亦不甚煩, 小便數而晝, 病屬中焦, 謂之消中. 熱伏於下, 腿膝枯細, 骨節痠疼, 飲水不多, 隨即尿下, 小便多而濁, 病屬下焦, 謂之消腎. 又有五石過度之人, 眞氣既盡, 石勢獨留, 陽道興強, 不交精泄, 謂之強中. 消渴輕也, 消中甚焉, 消腎尤甚焉. 若強中則其斃可立而待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形證에 『直指』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仁齋直指』²², 卷十七, 消渴, 消渴方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仁齋直指』는 宋의 楊士瀛이 지은 것이니, 王好古는 응당 楊士瀛으로 고쳐야 한다. ○『仁齋直指』에는 ‘石勢’가 ‘石氣’로 되어 있다.

[13-14]: 朱震亨, 曰, 上消者, 舌上赤裂, 大渴引飲, 白虎湯主之. 中消者,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 黃連猪肚丸主之. 下消者, 煩燥引飲, 小便如膏, 腿膝枯細, 六味地黃湯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有三에 『諸方』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古今醫鑑』⁸, 卷十, 消渴에서 인용한 것이다. 『古今醫鑑』은 明代 龔信이 지은 책이다. ○『東醫寶鑑』과 『古今醫鑑』에는 ‘白虎湯’이 ‘白虎加人蔘湯’으로 되어 있다.

[13-15]: 醫學綱目, 曰, 渴而多飲, 爲上消, 消穀善飢, 爲中消, 渴而尿數有膏油, 爲下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形證에 『綱目』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目』³, 卷之二十一, 消瘰門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는 ‘膏油’가 ‘膏’로 되어 있다.

[13-16]: 危亦林, 曰, 因耽嗜色慾, 或服丹石, 眞氣既脫, 熱邪獨盛, 飲食如湯消雪, 肌膚日削, 小便如膏油, 陽強興盛, 不交精泄, 三消之中, 最爲難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

之六, 消渴, 強中證에 『得效』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世醫得效方』⁶, 卷七, 消渴, 石膏薺苳湯에서 인용한 것이다. ○『世醫得效方』에는 “因耽嗜色慾, 及快意飲食, 或服丹石, 眞氣既脫, 藥氣陰發, 致煩渴引水, 飲食倍常, 陰氣常興, 不交精泄, 故中焦虛熱, 注於下焦, 三消之中, 最爲難治.”라고 하였다.

[13-19]: 危亦林, 曰, 消渴, 須防發癰疽, 忍冬藤, 不拘多少, 根莖花葉, 皆可服.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須豫防癰疽에 『得效』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世醫得效方』⁶, 卷七, 消渴, 忍冬圓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世醫得效方』에는 “忍冬藤”이 “忍冬草”로 되어 있다.

[13-20]: 李杲, 曰, 消渴之疾, 能食者, 未傳, 必發腦疽背瘡, 不能食者, 必傳中滿鼓脹.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傳變證에 『東垣』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東垣十種醫書』¹⁶, 蘭室秘藏, 卷上, 消渴門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蘭室秘藏』에는 “能食者, 未傳”이 “未傳, 能食者”로 되어 있다.

[13-21]: 東醫醫方類聚, 曰, 消渴之病, 變成發癰疽, 或成水病, 或雙目失明.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傳變證에 『類聚』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方類聚』¹⁸, 六冊, 消渴門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醫方類聚』에는 “消渴之病”이 “消渴久病”으로 되어 있다.

[13-23]: 王好古, 曰, 一童子, 自嬰至童, 盜汗七年, 諸藥不效, 服涼膈散, 三日病已.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¹³, 內景篇, 卷之二, 津液, 盜汗, 童子盜汗에 『海藏』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綱

目³, 卷之三十七, 小兒部, 心主熱, 盜汗 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綱目』에 ‘海’로부터 인용한다고 하였는데, ‘海’는 王海藏을 말한다.

[13-25]: 東醫醫方類聚, 曰, 夫渴者, 數飲水, 其人必頭面眩, 背寒而嘔, 因虛故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形證에 『類聚』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方類聚』¹⁸, 六冊, 消渴門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과 『醫方類聚』(人民出版社)에는 ‘頭面眩’이 ‘頭目眩’으로, ‘因虛故也’가 ‘因裏虛故也’로 되어 있다. ○『醫方類聚』(金剛出版社)에는 ‘其人必頭面眩’이 ‘其人心眩’으로, ‘因虛故也’가 ‘因利虛故也’로 되어 있다.

[13-26]: 龔信, 曰, 凡陰虛證, 每日午後, 惡寒發熱, 至晚, 亦得微汗而解. 誤作瘧治, 多致不救.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四, 虛勞, 陰虛用藥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古今醫鑑』⁸, 卷七, 虛勞에서 인용한 것이다.

[13-27]: 孫思邈千金方書, 曰, 消渴, 宜慎者有三, 一飲酒, 二房勞, 三鹹食及麵, 能慎此三者, 雖不服藥, 亦可自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六, 消渴, 禁忌法에 『千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備急千金要方』²³, 卷第二十一, 消渴第一에서 인용한 것이다. ○『備急千金要方』에는 “其所慎者有三, 一飲酒, 二房勞, 三鹹食及麵, 能慎此者, 雖不服藥, 而自可無他.”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二十一, 消渴門의 인용문은 『東醫寶鑑』과 같다.

第 16 章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

[16-1]: 張仲景, 曰,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主之. 註曰, 傷寒頭痛, 身疼腰痛, 以至牽連百骨節俱痛者, 此太陽傷寒, 榮血不利故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太陽形證用藥, 太陽傷寒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三卷, 辨太陽病脈證并治第六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太陽傷寒’이 ‘太陽病’으로, ‘骨節皆痛’이 ‘骨節疼痛’으로 되어 있다. ○註는 成無己의 註이니, 『仲景全書』의 註에 “比太陽傷寒也. 寒則傷榮, 頭痛, 身疼腰痛, 以致牽連骨節疼痛者, 太陽經榮血不利也.”라고 하였다.

[16-3]: 張仲景, 曰, 傷寒四五日而厥者, 必發熱,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傷寒厥四日, 熱反三日, 復厥五日, 厥多熱少, 其病爲進. 傷寒發熱四日, 厥反三日, 厥少熱多, 其病當自愈.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陰陽厥輕重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⁴, 第一篇, 傷寒論, 第六卷, 辨厥陰病脈證并治第十二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傷寒一二日, 至四五日而厥者, 必發熱, 前熱者, 後必厥, 厥深者, 熱亦深, 厥微者, 熱亦微. 傷寒厥四日, 熱反三日, 復厥五日, 其病爲進. 寒多熱少, 陽氣退, 故爲進也. 傷寒發熱四日, 厥反三日, 復熱四日, 厥少熱多, 其病當愈.”라고 하였다.

第 17 章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

[17-1]: 朱肱, 曰, 陽毒,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宜葛根解肌湯, 黑奴丸. 陽毒及壞傷寒, 醫所不治, 精魄已竭, 心下常煖, 斡開其口, 灌黑奴丸, 藥下咽, 卽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陽毒에 『活人』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增注類證活人書』¹⁴, 卷之十六, 陽毒升麻湯과 黑奴丸에서 인용한 것이다. ○『增注類證活人書』에는 ‘唾膿血’이 ‘下膿血’로 되어 있고(『醫學綱目』에는 ‘唾膿血’로 되어 있다.), 또 “黑奴丸, 壞傷寒,

醫所不治爲死，或人精魂已竭，心下纔煖，發開其口，灌藥下咽，卽活，兼治陽毒。”이라고 하였다.

[17-2]: 李梴, 曰, 微惡寒發熱, 宜葛根解肌湯. 目疼鼻乾, 潮汗閉澁, 滿渴狂譫, 宜調胃承氣湯. 熱在表則目疼不眠, 宜解肌湯. 熱入裏則狂譫, 宜調胃承氣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에 『入門』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 六經正病과 傷寒初證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入門』에는 “微惡寒發熱, 爲經病, 葛根解肌湯. …… 目痛鼻乾, 潮汗閉澁, 滿渴狂譫 爲腑病, 調胃承氣湯.”이라 하였고, 또 “熱在表則目疼不眠, 葛根解肌湯. 熱入裏則自狂狂譫, 調胃承氣湯.”이라고 하였다.

[17-3]: 龔信, 曰, 陽明病, 目疼, 鼻乾, 不得臥, 宜葛根解肌湯.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陽明形證用藥, 葛根解肌湯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古今醫鑑』⁸, 卷之三, 傷寒, 葛根解肌湯에서 인용한 것이다. ○『古今醫鑑』에는 “葛根解肌湯, 治足陽明胃經受證, 目痛鼻乾不眠, 微頭痛, 脈來微洪, 宜解肌, 屬陽明經病.”이라고 하였다.

[17-4]: 三陽病深, 變爲陽毒,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黃赤, 六脈洪大, 宜黑奴丸.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二, 寒(上), 傷寒陽毒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三陽病深, 變爲陽毒”은 『醫學入門』⁹, 外集, 卷三上, 傷寒變證에서 인용한 것이고, “面赤……六脈洪大”는 『古今醫鑑』⁸, 卷之三, 傷寒에서 인용한 것이다. ○『古今醫鑑』에 “面赤眼紅, 身發斑黃, 或下利純青水, 或下利黃赤, 六脈洪大, 名曰陽毒證.”이

라고 하였다.

[17-6]: 靈樞, 曰, 尺膚熱深, 脈盛燥者, 病溫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七, 瘟疫, 脈法에 『靈樞』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黃帝內經靈樞』²⁴, 論疾診尺第七十四에서 인용한 것이다. ○『黃帝內經靈樞』에는 “尺膚熱甚, 脈盛躁者, 病溫也.”로 되어 있다. 『東醫寶鑑』과 같다.

[17-7]: 王叔和, 曰, 瘟疫脈, 陰陽俱盛, 病熱之極, 浮之而滑, 沈之散澁.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七, 瘟疫, 脈法에 『脈訣』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丹溪心法附餘』¹², 卷一, 溫熱病에 의하면 『脈訣舉要』의 말이다. 『脈訣舉要』는宋代 崔嘉彥이 쓴 것이다. ○『丹溪心法附餘』에는 澁'이 '澁'으로 되어 있다.

[17-8]: 脈法, 曰, 瘟疫二三日, 體熱腹滿頭痛, 飲食如故, 脈直而疾, 八日死. 瘟疫四五日, 頭痛腹滿而吐, 脈來細而強, 十二日死. 八九日, 頭身不痛, 目不赤, 色不變, 而反利, 脈來澁, 按之不足, 舉時大, 心下堅, 十七日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七, 瘟疫, 脈法에 『脈法』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正傳』¹⁵, 卷之二, 瘟疫, 脈法에서 인용한 것이다. ○『醫學正傳』의 脈法에는 ‘脈來細而強’이 ‘脈來細而弦’으로, ‘按之不足, 舉時大’는 ‘按之不鼓手, 時大’로 되어 있다.

[17-9]: 龔信, 曰, 瘟疫, 穢穢大熱, 脈細小者, 死. 下利痛甚者, 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七, 瘟疫, 脈法에 『醫鑑』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瘟疫……脈細小者死”는 『古今醫鑑』⁸, 卷之一, 脈訣, 驗諸死證脈에서 인용한 것이고, “下利痛甚者死”는 『醫學正傳』¹⁵, 卷之二, 瘟疫, 脈法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

醫寶鑑』과 『醫學正傳』에는 “溫病下利，腹中痛甚者，死.”라고 되어 있다

[17-15]: 內經, 曰, 諸澁枯涸皴揭, 皆屬於燥.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三, 燥, 燥因血少에 『內經』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醫學正傳』¹⁵, 卷之二, 燥證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본문은 『素問玄機原病式』²⁵, 卷二, 燥類에 나오는 문구로 劉河間이 『素問, 至眞要大論』 病機十九條의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醫學正傳』에는 “內經曰……”이라고 인용되어 있다. ○『東醫寶鑑』과 『醫學正傳』에는 “諸澁枯涸, 乾勁皴揭, 皆屬於燥.”라고 하였다.

[17-17]: 靈樞, 曰, 二陽結, 謂之消. 飲一洩二, 死不治. 註曰, 二陽結, 謂胃及大腸熱結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消渴之源에 『內經』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는 『靈樞』가 『內經』으로 되어 있다. 『靈樞』는 응당 『內經』으로 고쳐야 한다. 註는 王冰의 註이다. ○“二陽結, 謂之消”는 『黃帝內經素問』²⁶, 陰陽別論篇第七에서, “飲一洩二, 死不 治”는 氣厥論篇第三十七에서 인용한 것이다.

[17-18]: 扁鵲難經, 曰, 消渴, 脈當得緊實而數, 反得沈澹而微者, 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之六, 消渴, 脈法에 『難經』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八十一難經』²⁷, 十七難에서 인용한 것이다. ○『難經』에는 “病若開目而渴, 心下牢者, 脈當得緊實而數, 反得沈澹而微者, 死也.”라고 하였다. 『醫學綱目』³, 卷之二十一, 消瘵門의 인용문에는 沈澹而微가 ‘沈澹而微’로 되어 있다.

[17-19]: 張仲景, 曰, 消渴病, 小便反多, 如飲水一斗, 小便亦一斗, 腎氣丸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⁵, 雜病篇, 卷

之六, 消渴, 消渴有三에 『仲景』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仲景全書』¹⁹, 第二篇, 金匱要略方論, 第二卷, 消渴小便利淋病脈證并治第十三에서 인용한 것이다. ○『仲景全書』에는 “男子消渴, 小便反多, 以飲一斗, 小便一斗, 腎氣丸主之.”라고 하였다.

[17-23]: 危亦林, 曰, 陰血耗竭, 耳聾目暗, 脚弱腰痛, 宜用黑元丹.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四, 虛勞, 肝虛藥, 黑元에 『得效』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世醫得效方』⁶, 卷八, 虛損, 黑圓에서 인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에는 “黑元丹”이 “黑元”으로 되어 있다. ○『世醫得效方』에는 “黑圓, 治精血耗竭, 面色黧黑, 耳聾目昏, 口乾多渴, 脚弱腰疼, 小便白濁, 上燥下寒, 不受峻補.”라고 하였다.

[12-24]: 凡男子方當壯年, 而眞氣猶怯, 此乃稟賦素弱, 非虛而然. 滋益之方, 群品稍衆, 藥力細微, 難見功效. 但固天元一氣, 使水升火降, 則五臟自和, 百病不生, 宜用拱辰丹.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四, 虛勞, 肝虛藥, 拱辰丹에 『得效』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世醫得效方』⁶, 卷八, 虛損, 拱辰丹에서 인용한 것이다. ○『世醫得效方』에는 “百病不生”이 “百病自去”로 되어 있다.

第 19 章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19-1]: 內經, 曰, 尺脈緩澁, 謂之解休. 釋曰, 尺爲陰部, 肝腎主之, 緩爲熱中, 澁爲亡血, 故謂之解休. 解休者, 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 痺不可名, 謂之解休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四, 虛勞, 解休證에 『內經』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黃帝內經素問』²⁶, 平人氣象論篇第十八에서 인용한 것이다. ○釋은 王冰의 주석이다. ○『內經』에는 ‘尺脈緩澁’이 ‘尺脈緩澹’으로 되어 있다. ○王註²⁸에

는 “尺爲陰部, 腹腎主之, 緩爲熱中, 澹爲無血, 熱而無血, 故解休, 竝不可名之, 然寒不寒, 熱不熱, 弱不弱, 壯不壯, 停不可名, 謂之解休也.”라고 하였다.

[19-2]: 靈樞, 曰, 髓傷則消燦肝痿, 體解休然不去矣. 不去, 謂不能行去也.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四, 虛勞, 解休證에 『靈樞』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黃帝內經素問』²⁶, 刺要論篇第五十에서 인용한 것이다. ○『靈樞』는 마땅히 『內經』으로 고쳐야 한다. 『內經』에는 ‘消燦’이 ‘銷鑠’으로, ‘肝痿’이 ‘筋酸’으로 되어 있다. ○“不去, 謂不能行去也”는 注文이다.

第 20 章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20-1]: 朱震亨, 曰, 噎膈反胃之病, 血液俱耗, 胃脘乾枯, 其枯在上近咽, 則水飲可行, 食物難入, 入亦不多, 名之曰噎. 其枯在下近胃, 則食雖可入, 難盡入胃, 良久復出, 名之曰膈, 亦曰反胃. 大便秘, 少若羊屎, 然名雖不同, 病出一體. 又曰, 上焦噎膈, 食下則胃脘當心而痛, 須臾吐出, 食出痛乃止. 中焦噎膈, 食物可下, 難盡入胃, 良久復出. 下焦噎膈, 朝食暮吐, 暮食朝吐. 氣血俱虛者, 口中多出沫, 但見沫多出者, 必死. 大便如羊屎者, 難治. 不淡飲食者, 難治.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五, 嘔吐, 噎膈反胃病因과 難治不治證에 『丹心』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噎膈反胃之病……病出一體”는 『局方發揮』²⁹에서 인용한 것이고, “又曰……暮食朝吐”는 『醫學正傳』¹⁵, 卷之三, 噎膈에서 인용한 것이며, “氣血俱虛者……必死”는 『丹溪心法附餘』¹²와 『醫學正傳』¹⁵에 “戴云”으로 인용되어 있는데 戴氏는 明代의 醫家 戴思恭을 가리킨다. “大便如羊屎者, 難治”는 『丹溪心法附餘』¹²에 『丹溪心法』에서 인용한다고 하였다. “不淡飲食者, 難治”는 『東醫寶鑑』에는 “不淡飲食者, 不澹房室者, 不治”라고 하였는데, 『醫學入門』¹⁷,

外集, 卷四下, 雜病分類(下), 痰類, 膈噎에 “不淡薄飲食, 斷絕房室者, 不治.”라고 하였다. ○『局方發揮』에는 “血液俱耗, 胃脘乾槁, 其槁在上, 近咽之下, 水飲可行, 食物難入, 間或可入, 亦不多, 名之曰噎. 其槁在下, 與胃爲近, 食雖可入, 難盡入胃, 良久復出, 名之曰膈, 亦曰反胃. 大便秘, 少若羊矢, 然名雖不同, 病出一體.”라고 하였다. ○『醫學正傳』에는 “或食下則胃脘當心而痛, 須臾吐出, 食出痛止, 其槁在賁門, 此皆上焦之膈噎也. 其或食物可下, 良久復出, 其槁在幽門, 此中焦之膈噎也. 其或朝食暮吐, 暮食朝吐, 其槁在闌門, 大小腸間, 此下焦之膈噎也.”라고 하였다. ○『丹溪心法附餘』에는 “氣血俱虛者, 則口中多出沫, 但見沫大出者, 必死. 糞如羊屎者, 斷不可治, 大腸無血故也.”라고 하였다.

[20-2]: 張鷟, 曰, 噎當是神思間病, 惟內觀自養, 可以治之.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五, 嘔吐, 噎膈反胃病因에 『丹心』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본문은 『局方發揮』²⁹에서 인용한 것이다. ○張鷟은 宋代의 醫家 張銳를 말한다.

[20-3]: 龔信醫鑑, 曰, 反胃也, 噎也, 膈也, 受病皆同. 噎膈之證, 不屬虛, 不屬實, 不屬冷, 不屬熱, 乃神氣中一點病耳.

[고증]: ○본문은 『東醫寶鑑』², 雜病篇, 卷之五, 嘔吐, 噎膈反胃病因에 『醫鑑』과 『醫林』으로부터 인용한다고 되어 있다. ○“反胃也……受病皆同”은 『古今醫鑑』⁸, 卷五, 翻胃에서 인용한 것이다. ○『古今醫鑑』에는 “反胃也, 噎也, 膈也, 三者名雖不同, 而其所受之病, 則一而已.”라고 하였다. ○『雜病廣要』³⁰, 臟腑類, 膈噎, 病由氣結에 『鷟普濟方』을 인용하여 “五噎諸氣, 此病, 不在外, 不在內, 不屬冷, 不屬熱, 不是實, 不是虛, 所以藥難取效……此乃神意間病也.”라고 하였다.

IV. 結 論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東醫寶鑑』에서 잘못 인용한 문구를 재인용한 경우

- [8-1]은 『張仲景傷寒論』이 아니라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것이다.
- [8-4]의 “藿香正氣散”은 『世醫得效方』 “香葛湯”의 조문과 유사하다.
- [8-13]의 “通斷”은 『普濟本事方』에서 擧入한 것으로 보인다.
- [8-15]의 “胃家實……乃可下也”는 樓英의 注文이다.
- [8-24]의 “陽明爲病……胃實則譫語”는 『醫學綱目』으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 [8-39]는 “張仲景”이 아니라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 [8-49]의 “朱肱”은 마땅히 “仲景”으로 고쳐야 한다.
- [9-7]의 “此乃結熱”은 마땅히 “此非結熱”로 고쳐야 한다.
- [9-13]의 “張仲景”은 마땅히 『醫學綱目』으로 고쳐야 한다.
- [9-16]의 “張仲景”은 “李梴”으로 고쳐야 옳은 것 같다.
- [9-16]의 “四逆者，四肢逆冷也”는 『丹溪心法附餘』에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9-25]의 “無證 謂無吐利厥證也”는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樓英의 注文이다.
- [9-26]의 “身有微汗”은 마땅히 “身有微熱”로 고쳐야 한다.
- [9-37]의 “朱肱”은 마땅히 “成無己”로 고쳐야 한다.
- [9-40]의 “厥陰病……愈”는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것이다.
- [9-51]의 “龔信”은 마땅히 『醫學綱目』으로 고쳐야 한다.
- [9-61]의 “朱肱”은 마땅히 “海藏”으로 고쳐

야 한다.

- [12-4], [12-5], [12-6]은 “張仲景”이 아니라 『醫學講目』에서 인용한 것이다.
- [12-12]의 “若合下不下……遍身浮腫”은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것이다.
- [12-16]의 “小結胸……宜小陷胸湯”은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것이다.
- [13-5]는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13-21]의 “消渴之病”은 마땅히 “消渴久病”으로 고쳐야 한다.
- [17-4]의 “三陽病深 變爲陽毒”은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것이다.
- [17-9]의 “下利痛甚者死”는 『醫學正傳』에서 인용한 것이다.
- [17-15]의 『內經』은 마땅히 『正傳』으로 고쳐야 한다.
- [19-2]의 『靈樞』는 마땅히 『內經』으로 고쳐야 한다.
- [20-1]의 “又曰……暮食朝吐”는 『醫學正傳』에서 인용한 것이고, “氣血俱虛者……必死”는 明代의 醫家 戴思恭의 말이며, “不淡飲食者，難治”는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 『東醫壽世保元』에서 잘못 인용한 경우

- [9-62]의 “一身不痛”과 “一身盡痛”은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 [13-13]의 “王好古”는 마땅히 “楊士瀛”으로 고쳐야 한다.
- [13-14]의 “朱震亨”은 마땅히 “諸方”이나 “龔信”으로 고쳐야 한다.
- [17-7]의 “王叔和”는 마땅히 “崔嘉彥”으로 고쳐야 한다.
- [17-17]의 『靈樞』는 마땅히 『內經』으로 고쳐야 한다.
- [20-3]의 “噎膈之證……乃神氣中一點病耳”는 『東醫寶鑑』에 의하면 『醫林撮要』에서 인용한 것이다.

(3) 끊어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경우

1. [8-42]의 “脈至皆大 煩而口噤”은 응당 “脈皆至, 大煩而口噤”으로 끊어 읽어야 한다.

V. 參考文獻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 교실. 四象醫學集文堂, 서울, 1997, 54.
2. 元泰喜. 精校註譯東醫寶鑑(雜病篇上). 新宇文化社, 서울, 2004, 272-273, 277-285, 287-289, 291-295, 299-301, 305, 314-319, 322-325, 331, 333, 341, 347, 349-351, 353-357, 359, 377, 380, 384-385, 387, 390, 452, 589, 602-603, 625, 664-666, 677.
3. 樓英. 醫學綱目. 一中社, 서울, 662, 857, 859-860, 880-882, 888, 1296, 1299, 1324-1325, 1332-1333, 1337-1338, 1345, 1347-1349, 1352, 1355, 1358-1359, 1365, 1370-1371, 1377, 1383, 1385, 1387, 1402-1404, 1407, 1413, 1609.
4. 張仲景. 傷寒論(仲景全書). 翰林社, 서울, 51, 84, 110, 115, 118, 127-128, 133, 141, 145, 163, 172-176, 178, 185-186, 189-190, 193-194, 196, 199, 207-208, 210, 214, 219, 222-224, 227-228, 232, 235, 237-240, 243-244, 246-247, 249, 251, 253-254, 264, 266, 270, 272, 279, 281, 290.
5. 元泰喜. 精校註譯東醫寶鑑(雜病篇下). 新宇文化社, 서울, 2005, 93-97, 108-109, 111-112, 117-118, 121, 127-129, 135, 182-183, 186.
6. 危亦林. 世醫得效方(中國醫學大系). 驪江出版社, 서울, 746-67, 746-68, 746-227, 746-231, 746-271, 746-269.
7. 陳師文 외. 太平惠民和劑局方. 旋風出版社, 臺北, 66.
8. 龔信. 古今醫鑑. 江西科學技術出版社南昌, 南昌, 1990, 14, 60-62, 65, 127, 132, 162, 178, 289, 1990.
9. 蔡仁植. 國譯編註醫學入門(Ⅲ). 南山堂, 서울, 1981, 38-39, 189, 244, 248-249, 251-252, 277, 326, 347, 383, 386, 439-440, 433.
10. 許叔微. 普濟本事方.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7, 112, 128.
11. 成無己. 傷寒明理論(仲景全書). 翰林社, 서울, 227-228.
12. 方廣.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09, 119, 123, 137-138, 299, 350.
13. 元泰喜. 精校註譯東醫寶鑑(內景篇). 新宇文化社, 서울, 2003, 281- 282, 286, 618.
14.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77-78, 105, 131, 135-138, 258, 397-398, 400-401, 528.
15. 虞搏. 醫學正傳. 成輔社, 서울, 1986, 53, 77, 128-129, 265-266, 294.
16. 李東垣 외.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3, 165, 274, 295.
17. 安秉國. 國譯編註醫學入門(Ⅳ). 南山堂, 서울 1982, 303, 471, 693.
18. 世宗大王 命撰. 醫方類聚. 金剛出版社, 서울, 1979, (二冊) 1134, (五冊) 4559.
19. 張仲景. 金匱要略(仲景全書). 翰林社, 서울, 65, 75.
20. 劉純. 玉機微義(劉純醫學全集).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777.
21. 王叔和. 王叔和脈經.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民國 64年, 180.
22. 楊士瀛. 仁齋直指(中國醫學大系). 驪江出版社, 서울, 744-329, 744-330.
2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大星文化社, 서울, 1984, 373.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309.
25.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劉河間三六書). 成輔社, 서울, 1976, 286.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31, 66, 140, 188.
27. 成樂箕. 八十一難經解釋(難經集註). 高文社,

- 서울, 1982, 16.
28. 王水. 黃帝內經素問.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民國 66年, 55.
29. 朱丹溪. 局方發揮(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3, 521.
30. 丹波元堅. 雜病廣要. 成輔社, 서울, 1986, 756.

K C I